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821226-0180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옵니다.
 대표강담전호 엄앵란
 광주지사 0621228-3222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8(土)	9(日)
호리고비 20 / 27℃	호리고비 22 / 25℃

News

- 금호산업 '이름다운 기부' ②
- '날씨 도우미' 김문용씨 ③

Jeollado

- 풍수·恨 불사르는 땅, 진도 ⑦

Entertainment

- 스크린 데뷔하는 장희진 ⑧
- "한국영화 2년후 큰 위기" ⑨

Books

- 역사에서 찾아낸 우리말 ⑩
- 돈가스 통해 본 일본 풍경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가지 ⑬

비브리오패혈증 백신기술 개발

전남대 이준행교수팀 세계 최초...돌연변이 균주 효능 확인

해마다 수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30명이 사망한 비브리오패혈증은 발령 소식만으로도 횡집 매출액을 급감시킬 만큼 위협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대 의대 이준행(46) 교수팀이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는 백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교수팀을 비롯한 연구진 12명은 과학기술부 지정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지원으로 이번 연구를 성사시켰다. 비브리오패혈증 균을 조작해 얻은 돌연변이 균주 'CMM 781'이 백신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생쥐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기초연구개발단계인 이 교수의 백신 개발이 비임상-임상 과정을 거쳐 상품화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대 의대 이준행 교수(오른쪽)를 비롯한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 연구진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돌연변이 균주 'CMM781'을 실험용 쥐에 주입하고 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동물임상'만 5억원 연구비 확보 어려움

이교수는 지난 1984년 전남대 의대 졸업 직후부터 '비브리오패혈증'을 연구해 왔다. 당시 전남대 총장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온 나라가 '괴질 공포'로 떠들썩해지자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이 질환의 치료법을 꼭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90년대 초반 나왔다. 'EDTA'라는 이름의 화학 물질로 어패류를 씻으면 균이 완전히 죽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1996년에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진단하는 'PCR' 개발에 성공했다. PCR은 예전에 4~5일 걸리던 진단 시간을 수 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중 사람을 죽이는 독력인자 'RTX' 독소를 규명한 것은 2001년.

그리고 2002년에는 비브리오패혈증의 유전체 열기서열을 세계 최초로 완전 해독했다. 이 유전자 지도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바이오텍 정보센터(NCBI)의 세균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돼 있다.

이 교수는 "아직은 기초 단계일 뿐"이라며 "비임상-임상실험을 하는데 최소 5~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매년 2억여원이 지급되던 NRL 지원이 종료되면서 추가 연구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와 영장류를 이용하는 비임상 과정에서만 5억여원이 소요되지만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 참여에 나서려는 제약 기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3군 법정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은 해

수 온도가 높아지는 6~8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발견이 어렵지만 일단 병이 진행되면 몸 곳곳에 과사가 일어나며 저혈압 쇼크로 생명을 잃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979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 21건, 2001년 6건, 2002년 22건, 2003년 45건, 2004년 11건, 2005년 12건이 발생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北 미사일 발사 이틀前 정부에 군사회담 제의

국방부, 발사 다음날 연기통보 장관급 회담은 예정대로 개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인 지난 3일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연락장교)접촉을 갖자고 남측에 제의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화를 제의해놓고 미사일을 쏘는 북측의 '이중 플레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애초 예정대로 11~14일 부산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목(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날 "북측이 지난 3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관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5일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다음날인 6일 "현 시점이 적정한 시기가 아니며 접촉일자를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연기를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11~14일 부산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개최될 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북극 문제와 핵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과 관련 윤광웅 국방장관은 7일 "또 한발의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함북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중·일·러시아 등 4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7일부터 9일까지 방한, 북 미사일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진흥고 정영일 美 프로야구 진출

LA 에인절스 입단 합의 국내 선수로는 31번째

광주 진흥고의 '초고교급 투수' 정영일(18·3년)이 한국선수로는 31번째로 미국프로야구에 입성하게 됐다.

정영일의 부모는 7일 정영일이 LA 에인절스에 입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최소 100만달러(9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영일은 9일 오후 5시 광주 마스터스 관광호텔에서 클레이 대니얼 에인절스 국제담당 스카우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 조인식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정영일은 지난 1994년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미국 무대에 첫 발을 디딘 이후 한국 선수로는 31번째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한다.

188cm, 96kg의 좋은 체격 조건에 최고 구속 149km의 직구를 지닌 정영일은 올해 열린 광주주일보 주최 무등기대회에서 최고 151km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영일은 KIA에 1차 지명됐으나 국내 구단 입단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9일 - 3·4위전>	독일	포르투갈
	슈투트가르트(04:00)KBS2·MBC·KBC	
<10일 - 결승>	이탈리아	프랑스
	베를린(03:00)KBS2·MBC·KBC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 **함평다이내스티 C.C**
혹서기 비회원 주중 그린피 할인

함평다이내스티 신도시 클럽

구분	대	중	백	고
기간	2006.07.08 ~ 2006.08.31 (1.2개월)			
할인율	30% OFF			
적용시간	09:00 ~ 18:00			